

山寺 가야금 소리 전시장 디자인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락' 섹션 강진 백련사 만경루 현장 녹음

지난 23일 오후 5시 강진 백련사 만경루.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끼어들 틈 없는 적막한 산사에 때아닌 가야금 가락이 울려 퍼졌다.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5일·이하 디자인비엔날레)가 새롭게 시도하는 '락(樂)' 섹션의 현장 녹음을 위한

가 기울면서 아름다움을 더했다.

중국 관광객 하홍비(25)씨는 "환상적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공연이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또 이날 공연을 생생하게 소개하게 될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았다.

50여분 동안 계속된 공연 동안, 백련사



지난 23일 강진군 백련사 만경루에서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마련한 추정현씨의 가야금 산조 모습. 이날 공연은 오는 9월 개막하는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소개된다.

추정현씨 최옥삼류 산조에 어깨가 '들썩' 산새 소리·기도 소리까지 생생한 효과음

공연이었다. '락'은 소리를 녹음한 뒤 비엔날레 전시장에 스튜디오를 설치해 다시 들려주는 섹션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광주예술고 교사)씨가 최옥삼류 산조를 연주했고, 일본과 중국 관광객 등 30여명의 관객이 함께 행사를 지켜봤다.

강진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만경루에 모인 이들은 '다스름-진양-중모리-휘모리'로 치닫는 가야금 선율에 따라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만 가지의 빼어난 경치(萬景)를 내려다 볼 수 있다는 만경루 주변 풍경도 산조 가락에 따라 천천히 해

동백숲에서 눈치없이 울어대는 산새 소리와 '관세음보살'을 되뇌는 법당 안 신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도 연주에 끼어들었다.

국악과 산사의 다양한 소리를 여과 없이 함께 담아내는 게 전시 기획이기에, 녹음을 하는 '락' 섹션 큐레이터 김영일(악당이반 대표)씨는 개의치 않았다. 법당을 거니는 신도들의 발걸음 소리 등 녹음 현장의 잡음 또한 생생한 효과음으로 담았었다.

'악당이반'은 '전국이 스튜디오'라는 취지로, 국내 유명 한옥에서 국악을 녹음한 음반을 만들고 있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사운드 오브 광주'를 주제로 전시장에 SACD(super audio compact disc) 스튜디오를 설치해 이날 공연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이장우 가옥(광주시 지정 민속자료 1호), 최승효 고택(시 지정 민속자료 2호) 등지에서 공연한 모든 소리를 들려준다. SACD는 CD의 재생 한계를 넘어서 연주회장의 공기까지도 충실히 재현할 수 있다는 평을 받는 신기술이다.

'락' 섹션은 일종의 소리를 디자인화해 선보이는 이색 전시이다. 인류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더욱 예쁘고, 기능적인 스피커를 만들어 내는 등 수많은 디자인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전시장은 '에디슨에서 아이팟까지' '소

리 산업의 방' '죽과-그 아련한 여인의 산조 이야기' 등 3개로 꾸러진다. 소리는 보이지 않는 매체를 담기 위한 디자인의 역사와 게임음악 제작자 임지윤씨, 영화음악 제작자 장영규, 창작음악 제작자 이태원씨 등이 소리 산업을 소개한다. 또 가야금 산조의 명인 김죽과 선생의 삶을 통해 산조의 세계화를 모색한다.

김영일씨는 "현장 공연은 객석과 무대가 가까이 연주자들도 애를 먹는데, 이날은 모두가 한 호흡으로 훌륭한 공연을 만들어냈다"면서 "백련사 공연을 비롯해 디자인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다양한 소리를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 기자 kroh@kwangju.co.kr

창작곡 경연대회·1318 뮤직배틀

본선 참가 18개 팀 확정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스탠딩 존 관객 300명 모집

2009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GYMF·음악감독 남유진) 메인 행사인 창작곡 경연대회와 1318 뮤직배틀 참가팀이 확정됐다.

GYMF 사무국은 최근 심사를 갖고 청소년 음악 동아리 지원 사업인 '1318 뮤직배틀' 광주 지역 참가팀을 확정했다.

선정팀은 ▲미르(광주) ▲유오디아(동명고) ▲나 잘난 밴드(나 잘난 학교) ▲달토끼(중화성 연합밴드) ▲합합합 템포 등 5팀이다.

선발된 5개팀은 오는 29일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리는 2009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전야제 무대에 '1318 뮤직 배틀'에 출연, 전국에

서 선발된 5팀과 경연을 벌인다. 수상팀은 행사 주관 단체인 광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후원으로 밴드 연습실을 무료로 제공받으며 음악활동 지원도 받는다.

사무국은 또 1차 음원 심사를 통과한 17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창작곡 경연대회 2차 심사를 개최하고, 본선 진출팀 8팀을 확정했다. 8팀은 30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본행사에서 경연을 갖는다.

관련 사무국은 오는 본행사 가운데 하나인 'GYMF SOUND -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스탠딩 존' 관객 300명을 공개모집한다.

광주 MBC '문화콘서트 난장'과 연계해 진행되는 행사로 '폰부스', '커먼 그라운드', '강은일과 해금 플러스'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376-13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던양상블 정기연주회 ▶25일 문예회관

모던양상블 정기연주회가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 레퍼토리는 생상의 '클라리넷, 플루트,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곡 D 단조 타란텔라', 멘델스존의 '피아노, 플루트, 첼로를 위한 피아노 트리오 D단조 작품 49', 미요의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드보르작의 '뚝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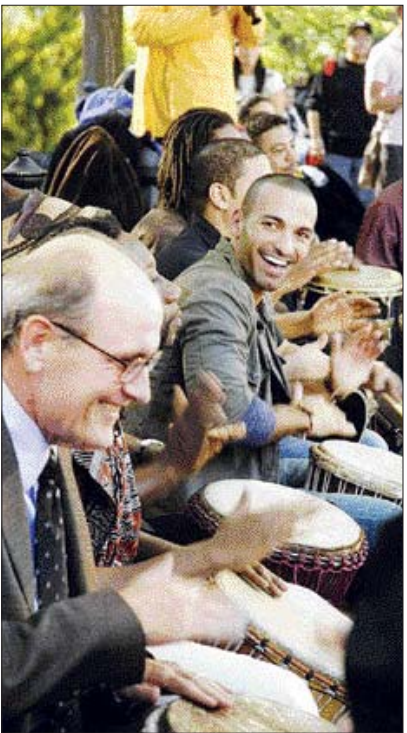
지난 2003년 창단한 모던 양상블은 전원주(피아노·광주대 출강), 박지혜(플루트·광주대 출강), 석민정(첼로·



광주시향 삼일단원), 석수연(바이올린·광주시향 삼일단원), 양수현(클라리넷·전남대 출강)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 062-227-74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첼로 연주 듣고 영화도 보고

프랑스문화원·광주극장, 30일 오후 5시 '음악으로 통한다'



영화 '더 비지터'

광주프랑스문화원(원장 최승은)과 광주 극장이 연주회와 영화 감상이 어우러진 이벤트 '음악으로 통한다'를 마련했다. 30일 오후 5시부터 광주극장.

이날 공연에 나서는 첼리스트는 프랑스의 마야 보그다노비치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출신으로 이탈리아 토르토나공쿠르, 파리 로스트로포비치 경연대회 등에서 수상한 그녀는 이번 공연에서 포레의 '로망스', 슈만의 '5개의 민요풍 소품',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 사장조' 등을 들려준다.

연주에 이어 상영되는 영화 '더 비지터'는 2008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됐던 작품으로 톰 맥카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는 피아니스트인 아내와 사별한 경제학 교수 윌터가 우연히 아프리카 전통 드럼인 켈베를 배우면서 벌어지는 이

야기를 잔잔하게 그리고 있다. 주인공 역을 맡은 리처드 젠킨스는 2009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아름다운 촬영과 연기, 음악의 조화 속에 올해의 가장 흥미로운 드라마로 호평을 받으며 장기 상영된 작품으로 올 하반기에 정식 개봉한다.

'음악으로 통한다'는 프랑스문화원과 광주극장이 3년째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에는 프랑스 상송그룹 '작은 카페의 사랑' 공연과 '안녕, 나의 집' 상영이 진행됐으며 지난해에는 '윌스' 상영과 피보 꼬방 클래식 기타 콘서트도 열렸다. 티켓 가격 1만 5천원. 예매 시 1만 2천원. 문의 062-224-5858. cafe.naver.com/cinemagwangju.caf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첼리스트 마야 보그다노비치

배봉기 광주대 교수 '사라지지 않는' 출간

배봉기 광주대 교수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에 이어 '사라지지 않는 노래'(푸른책들 펴냄)를 냈다.

소설은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스터 섬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의 파괴적인 욕망과 그것을 마침내 극복했을 때 찾을 수 있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가는 모야이 석상을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빚어낸 파괴적 상징물로



그러 내며, '장미'와 '단이'가 처한 비극적 운명을 통해 오늘날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는 삶을 돌아보게 한다.

배 씨는 소년중앙문학상 수상으로 등단 후 '너랑 놀고 싶어' 등 아동도서와 '서울사막 낙타눈길 혹은 낙타의 눈물' 등 장편소설을 펴냈다. 지난해 한국연극 100주년 기념 희곡 공모에서 '인간의 시간'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엔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 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걸어온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귀함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ji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 키펀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작용, 일산화수소기 제거, 면역기능 향상
- 피부 노화 방지
- 눈의 건조감과 피로, 야맹증
- 햇빛 피부로 인해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의 예방, 인공색소 침착을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각기시 다중 증상의 완화
- 허파, 뇌경동, 수축성 심근경색

아연의 보급

광고심의필 : 1005-0430